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역사비평사)을 처음 접했을 때는 상투적인 제목 때문에 '뭐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막상 본문을 읽다 보니 그 내용이 책 제목대로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을 되짚고 있어 대단히 흥미롭고 생각할 거리도 많이 안겨줬다. 그래서 한판 힘겨운 씨름을 하듯 읽게 되는 책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한 개항기의 상황을 배경에 깔면서 시작하고, 시대의 향방을 좌우했던 사건, 그 사건들과 연관된 입장차이와 논쟁들을 서술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일제치하로의 이행, 일제하에서 일어난 각종 항일민족독립운동, 이 상황에서 벌어진 여러 분열·대립과 논쟁, 그리고 광복 후의 상황과 50, 60년대 및 80년대, 그리고 90년대 말 '박정희 신드롬'을 둘러싼 언론계, 정치권, 학계의 공방까지 이른다.

시대상황 배경으로 다양한 논쟁 다뤄

여러 분야와 주제로 100여년에 걸쳐 벌어진 논쟁들을 보며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그렇게도 많고 다양한 논쟁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쟁점으로는 개항기의 척사론과 개국론 논쟁, 1920년대의 프롤레타리아문학 논쟁, 해방 후의 찬탁반탁운동 논쟁, 1950년대 정비석의 베스트셀러 《자유부인》을 둘러싼 공방, 1980년대 학생운동과 청년운동 사이에서 벌어진 사회구성체 논쟁, 87년 대통령선거에서 비판적 지지·후보단 일화·독자후보론 사이의 논쟁, 89년 전교조 결성을 둘러싼 공방(교사는 노동자인가) 등은 일반인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구한말 대한제국의 성격에 대한 평가, 일제하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찬반논쟁, 임시정부 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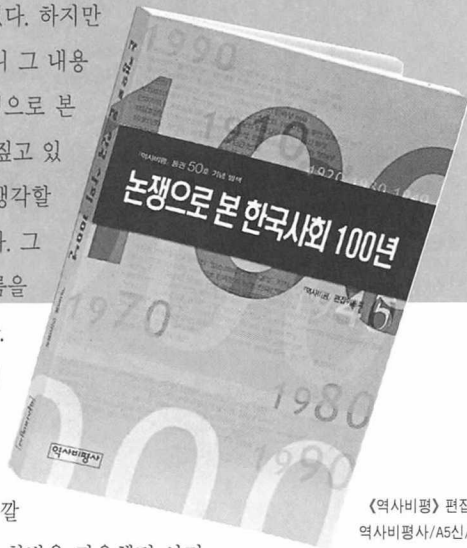
논쟁으로 재조명한 한국의 근현대사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을 읽고

유팔무 | 한림대 사회과학부 교수·《경제와 사회》편집주간

개항기의 '척사론과 개국론 논쟁'에서 90년대 말 '박정희 신드롬'을 둘러싼 논쟁까지, 한국사회에는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시대의 향방을 둘러싼 논쟁,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이뤄진 논쟁 등 그 성격도 다양하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수놓은 의미있는 논쟁들을 정리한 이 책은 인물과 조직, 그리고 정파 중심으로 그 내용을 집약해 더 흥미롭다.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역사비평사/A5신/432면/9000원

론과 창조론 사이의 공방, 195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을 둘러싼 공방(민간주도형 경제개발론, 국가주도형 경제개발론, 사회민주주의형 경제개발론) 등과 같이 시대의 향방과 직결된 이슈였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논쟁들도 있어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

이 책은 이런 다양한 논쟁들을 통해 역사적으로 명명한 순한 위인들과 집단들 사이의 입장차이를 조명하고 있으며, 당시의 시대상황이나 여건을 배경요인으로 깔고 해설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입체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간추린 우리 역사,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 그리고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된 입장들의 분화와 대립, 이를 표현하는 주장과 논쟁을 인물·조직·정파들 중심으로 집약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기도 하다. 따라서 이 책이 한국사에 대한 흥미를 촉발하고 고무시키는 데 충분하다는 느낌이다. 나아가 좀더 자세하게, 또 이 책에서 취급하지 않은 더 많은 논쟁들을 발굴·정리해 증보판이나 다른 책들로 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생긴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것은 한국인들이 소신있는 주장들을 많이 펼쳐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두드러졌고, 그

후에도 민족자주 혹은 독립과 관련해, 또 프롤레타리아나 민중해방이나 복리문제의 관련한 주장과 논쟁들이 대체로 강한 소신들을 담고 있었다.

과거에 비해 약화된 오늘날의 논쟁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는 논쟁이 약화되고 있는가? 논쟁을 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토론문화로 바뀐 것인가? 논쟁은 또 왜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새삼 '논쟁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의약분업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논쟁일까? 물론 '사회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분명 그것은 논쟁이다.

이렇게 보면, 논쟁이라는 것은 학술토론회나 학술지를 통해 이뤄지는 것 외에도 정치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일상생활의 차원 등 여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논쟁들은 또 적지 않은 경우, 여러 차원에 걸친 분열과 이해상충과 권력 관계를 투영하면서 상호영향을 주는 맥락 속에 위치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비록 '간추린 역사와 해설'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바로 이같은 논쟁의 다차원성, 그리고 현실적 맥락과의 상관성을 놓치지 않고 있어 학문적으로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